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23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잦은 비와 고온 여파 수발아·곰팡이 피해 '어쩌나' -9면	원예작물과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홍보담당자 연찬회 2개 부문 우수상-8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제주농업기술센터 학교 4-H회 지도교사 연찬회 개최-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제주서부블루베리연구회, 재배기술 교육 -1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알림-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콤바인으로 분주한 콩 수확 현장-5면	-	제민일보
○	CPTPP 수순 맞춰 제주도에 신속·선제적 대응 주문-2면	-	제주매일
○	잇단 지게차 참변 '이대론 안된다'… 사업장 특별점검-4면	-	제주매일
○	성산농협, 겨울무·감황 골드키위 캐나다 수출-9면	-	제주매일
○	제주산 브로콜리, 소비 부진 등에 가격 하락 시장 가격 지지·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추진-6면	-	삼다일보
○	비에 썩어가는 감귤… "재해보험 사각지대" -6면	-	한라일보

(제주매일: 2026년 11월 23일)

○ 잦은 비와 고온 여파 수발아・곰팡이 피해 '어쩌나' -9면

잦은 비와 고온 여파 수발아·곰팡이 피해 '어쩌나'

도·농식품부, 콩·메밀·녹두 2812ha 피해 합동점검
농가별 피해 신고 이어 현장조사…복구지원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도의 농업재해 판단 요청에 따라 20일 콩·메밀·녹두 수발아 피해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제주지역은 10월 중순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콩·메밀·녹두 등 식량작물의 수확이 지연되면서 수발아와 곰팡이 발생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제주·성산·고산 3개 지점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377.5㎜로 평년(131.8㎜)의 약 2.9배에 달했다. 강수일수는 22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으며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1.3℃ 높은 18.4℃를 기록했다.

도는 기상 여건과 작물별 수확·작황 조사 등을 토대로 콩 1495ha, 메밀 1132ha, 녹두 185ha 등 총 2812ha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가 제출한 현장조사 결과와 기상자료,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의 피해 원인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확 전 콩 꼬투리 안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과 콩알의 주름 발생, 꼬투리 변색 등이며 메밀과 녹두의 수발아 및 곰팡이 피해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농가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과 피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수확기 잦은 비로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협력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농업재해 인정과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점검반이 제주 콩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11. 23. 제주매일 9

(삼다일보: 2026년 11월 23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홍보담당자 연찬회 2개 부문 우수상-8면

제주도농업기술원, 홍보담당자 연찬회 2개 부문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지난 19일 서귀포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농촌진흥기관 홍보담당자 연찬회에서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기관'과 '농촌진흥기관 우수 소셜미디어' 2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11. 23. 삼다일보 8

(삼다일보: 2026년 11월 23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학교 4-H회 지도교사 연찬회 개최-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학교 4-H회 지도교사 연찬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제주시 치유농장 몽라브에서 학교 4-H회 지도교사와 제주시4-H본부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2026년 학교 4-H회 지도교사 연찬회'를 개최했다.

11. 23.
삼다일보 8

(제민일보: 2026년 11월 23일)

○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19일 센터 교육관에서 제주서부블루베리연구회 회원 및 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블루베리의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11. 23.
제민일보 13

(제주매일: 2026년 11월 23일)

○ 제주서부블루베리연구회, 재배기술 교육-12면



제주서부블루베리연구회, 재배기술 교육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지난 19일 센터 교육관에서 제주서부블루베리연구회 회원 및 농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1. 23. 제주매일 12

(제주일보: 2026년 11월 23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알림-9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알림

▲행사기간=11월19일(목)~11월23일(월)

※개막식=11월19일(목) 오전 11시

▲행사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행사주제='감귤을 품은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

▲행사내용=볼거리(대한민국 감귤관, 농기자재 및 감귤직거래장), 즐길거리(감귤따기체험, 직거래장 이벤트존 등), 먹거리(과자체험, 푸드트럭 등), 포토존(거인국 감귤 포토존, 녹차원 포토존 등)

▲행사문의=(사)제주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064-762-3091)

11. 23.
제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11월 23일)

○ 콤바인으로 분주한 콩 수확 현장-5면



11. 23.
제민일보 5

콤바인으로 분주한 콩 수확 현장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콤바인이 누렇게 익은 콩밭을 오가며 콩을 수확하는 등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김봉철 기자

(제주매일: 2026년 11월 23일)

○ CPTPP 수순 맞춰 제주도에 신속・선제적 대응 주문-2면

CPTPP 수순 맞춰 제주도에 신속·선제적 대응 주문

도의회 농수위, 20일 긴급 현안질의 열고 우려 표명
이창흠 부지사, 영향 분석 조속 추진 등 계획 공개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의 김승준, 장정훈, 박호형 의원(왼쪽부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제주도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충룡)는 이와 관련 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를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부지사는 "CPTPP 가입은 제주 농업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가입 시 제주 농산물에 미칠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응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정부 세부 분석 발표 전이라도 제주연구원과의 협업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감귤·월동채소·축산물 등 품목별 분석을 조속히 추진한다. 제2기 농정자문위원회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민감품목 지정과 양허 제외, 피해 보전 직불제, 폐업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하고 도내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

도의원들은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에 달해 조수입 5조원 규모의 제주 1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베트남 현지 감귤 가격이 1㎏당 15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개방 시 제주 1차산업이 무너질 위기"라며 전략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제주도는 1차산업 전 분야가 얽혀 있어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품목별 피해 예상치를 미리 산출해 협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갑)과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기후변화 피해까지 겹친 이중고를 지적하며 연내 조속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주문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과거 FTA 기금 조성 당시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사용 제한으로 농민 체감 혜택이 적었다"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금 마련을 당부했다.

강충룡 위원장(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미국산 만다린과 달리 베트남산 감귤류는 일주일 이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입될 수 있고 두리안 등 대체 과일과 향후 중국·태국의 가입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의견을 물을 때 즉각 제시할 수 있는 제주만의 구체적인 대응안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문호 기자

11. 23.
제주매일 2

(제주매일: 2026년 11월 23일)

○ 잇단 지게차 참변 '이대론 안된다' …사업장 특별점검-4면

잇단 지게차 참변 '이대론 안된다'…사업장 특별점검

도, 등록 지게차 2943대 소유주에 안전수칙 안내
경찰, 사망사고 업체 압수수색…노동당국도 조사

제주에서 넉 달 사이 지게차 전복으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제주도가 위험사업장 특별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추진에 나섰다. 무면허 운전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도는 지게차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illegible]과 현장 지도, 관계기관 합동 [illegible] 12월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긴급회의에서 마련한 5개 분야 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 2943대의 소유주 1847개소에 도지사 서한문과 안전수칙을 담은 포스터·스티커를 발송했다. 핵심 수칙은 △무면허 운전 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좌석 안전띠 착용 △급정지·급선회 금지 △시동 열쇠 분리 보관 등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감귤선과장,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등을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도 실시했다.

도는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협력해 위험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상담과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축협·감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제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지게차 운전자격과 작업계획서 작성,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사망사고 유가족에게는 도민안전보험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생계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 신청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배송 노동자 김경식(44)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씨가 소속됐던 물류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11. 23.
제주매일 4

(제주매일: 2026년 11월 23일)

○ 성산농협, 겨울무・감황 골드키위 캐나다 수출-9면

성산농협, 겨울무·감황 골드키위 캐나다 수출

겨울무 1200t 수출 목표, 감황 골드키위 판로 확대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박명종)은 지난 20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산 겨울무 및 감황 골드키위 캐나다 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의 대표 품목인 겨울무는 매년 미국과 캐나다,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연간 1000t 이상 수출되고 있다. 올해는 1200t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황 골드키위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농협은 2025년산부터 NH농협무역과 협력해 캐나다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illegible] 현지 소비자들에게 감황 골드키위



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박명종 조합장은 "겨울무와 감황 골드키위 등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수출 기반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11. 23.
제주매일 9

(삼다일보: 2026년 11월 23일)

○ 제주산 브로콜리, 소비 부진 등에 가격 하락 시장가격 지지·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추진-6면

제주산 브로콜리, 소비 부진 등에 가격 하락

시장가격 지지·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추진

TF팀 첫 회의, 통합 마케팅 등 논의

제주산 브로콜리 가격이 타 지역 출하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하락하면서 당국이 시장가격 지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지난 17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제주브로콜리연합회,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산 제주 브로콜리 수급안정 추진단(TF팀) 1차 회의를 열고, 통합 마케팅 및 가공사업 등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2026년산 도매시장 브로콜리 평균 경락가격은 8kg 상자당 1만9027원으로 평년 동기(2만5851원) 대비 26.4% 급락한 상태다. 강원·충북 등 타 지역 생산 물량 출하가 이어지는 데다 도내 조생종 재배 비율이 확대되면서 초반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탓이다.

이에 따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도매시장 출하량을 분산하고 산지 가격을 지지고자 23일부터 통합마케팅 수

11. 23.
삼다일보 6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조생종 출하가 집중되는 연내 수급안정사업비를 투입해 출하 물량을 집중 관리하고, 중·만생종 주출하기인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도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아울러 브로콜리의 가공 다변화를 위해 IQF(개별급속냉동) 및 스낵 가공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공 가능 물량과 사업 추진 조건을 확인하고, 가공품 품질과 수율 확보를 위해 상품 위주의 원물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브로콜리연합회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자조금 1억원을 활용한 약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농가의 방제 부담을 완화하고, 병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영환 ㈜제주브로콜리연합회 회장은 "초기 출하 집중과 육지부 출하 연장으로 하락한 도매시장 가격 지지를 위해 출하 물량 분산 등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상품 선별과 분산 출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11월 23일)

○ 비에 썩어가는 감귤… “재해보험 사각지대” -6면

비에 썩어가는 감귤… “재해보험 사각지대”

최근 한 달 새 20일 넘게 비… 나무에 달린 감귤 부패 확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했지만 ‘병해충’이라며 보상에서 제외
농가 “잦은 비로 인한 피해 분명한데 보상 안 된다니 답답”



감귤 수확철인 10월 중순 이후 한 달여 사이에 20일 이상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귤이 나무에 달린 채로 썩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최근 한 달여 사이 잦은 강우 등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잦은 비로 인한 병해충 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험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주도는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잦은 비로 감귤이 나무에서 썩어 떨어져 수확량이 감소해도 정작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상받기는 어려워서다.

22일 도내 감귤농가 등에 따르면 감귤 수확철인 10월 중순 이후 20일 넘게 이어진 비 날씨로 농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감귤의 10~20%가량에서 수분을 머금은 열매가 나무에 달린 채 썩는 ‘수부증’이 발생하고 있다. 평년에는 부패 발생률이 1~2% 수준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지만, 올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역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수부증을 병해충으로 판단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호우·강풍 피해와 동상해·냉해·폭염 또는 기타 자연재해와 새·짐승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원인의 직·간접 여부와 관계없이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약관은 규정하고 있다.

농가들은 이 같은 보상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평년 가을의 경우 잦은 비로 인한 감귤 부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한 달 새 20일 이상 비가 내리면서 2차 피해로 수부증 발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윤천(서귀포시 남원읍) 씨는 “극조생 노지감귤에서 부패과가 발생한 데 이어 한창 수확철인 조생에서도 부패과 발생이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증가했다”며 “줄곧 감귤 농사를 짓지만 감귤 수확기에는 병해충이 거의 없다. 올해 수부증은 유난히 잦은 가을철 비로 발생한 2차 피해가 분명한데도 농협손해보험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재해보험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툭 건드리면 나무에서 떨어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감귤이 적잖다”며 “이는 농가의 영농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관행적인 병해충이 아니라 유례없이 잦은 비로 인한 피해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도 “올해 감귤 농가마다 수부증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보상이 안 된다고 해 답답해하고 있다”며 “보험의 취지에 맞게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귤농가들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주감귤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2024년 5974농가·3794ha, 2025년 6041농가·4281ha, 올해 5709농가·3864ha다. 피해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4년 3958농가·69억5000만원, 2025년 2208농가·33억6100만원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484농가에 5억6100만원이 지급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11. 23. 한라일보 6